

중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평가와 2019년 전망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일자리혁신센터장)

■ 머리말

201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늘날 일본을 넘어서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개혁개방의 성공을 자축하기도 전에 미국발 무역전쟁으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부과로 중국은 최대 1,160만 개의 일자리를 상실하고, 실업률도 최대 5.0%p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장난감, 방직의류, 피혁제품, 전기설비 제조업 등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산업과 항공, 고속철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및 하이테크 기술제품 등 기술유입과 자금대출 방면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은 기술집약형 산업 그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동관(东莞), 심천(深圳), 주해(珠海), 소주(苏州) 등 지역 기업의 경영난과 파산으로 대량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일자리 관련 통계자료만을 놓고 본다면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통계에 의하면, 2018년 말 현재 도시지역 취업자 수는 4억 3,41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957만 명 증가했다. 그리고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등기실업률, 청년실업률, 대졸자 취업률 모두 지난해보다 양호했다. 이처럼 중국경제가 미중 통상마찰의 확대로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중국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다. 이 글에서는 중국 국가통계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의 고용노동 관련 통계자료 그리고 중국사회과학원이 매년 발간하는 ‘중국사회형세 분석 및 예측(2019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중국경제형세 분석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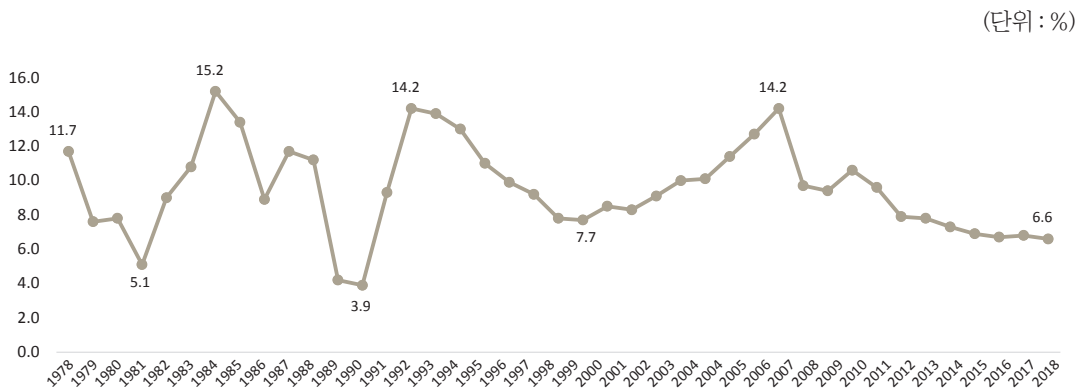
예측(2019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등을 중심으로 2018년 중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2019년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2018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기본현황

고용시장 대체로 안정, 정부 일자리 목표 조기달성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국내총생산액(GDP)은 90조 309억 위안(한화 약 1경 4,938조 8천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했고,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3%p 감소했다.¹⁾ 2018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중국정부가 설정했던 6.5%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중국경제가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그림 1 참조)와 세계경제의 악화 및 미중 무역전쟁 등 복잡했던 국내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 속에서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함께 존재한다.

[그림 1] 연도별 중국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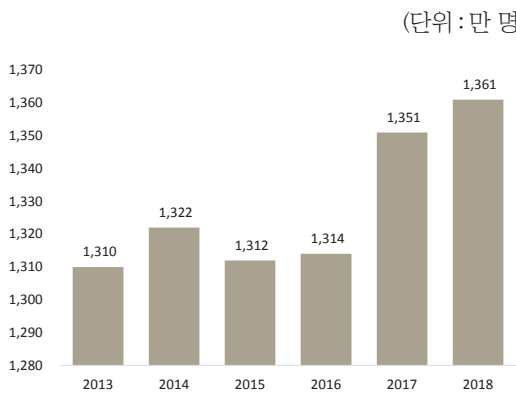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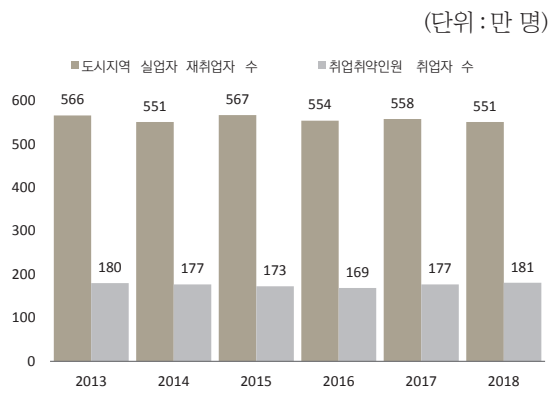
1) 赵同录: 经济运行稳中有进 发展质量不断提高(http://www.stats.gov.cn/tjsj/sjjd/201901/t20190122_1646234.html, 최종검색일: 2019년 1월 31일).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镇新增就业人数)²⁾’는 경제성장으로 창출된 일자리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지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루아이홍(卢爱红) 대변인은 지난 1월 24일 있었던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2018년 4/4분기 언론브리핑(人社部2018年第四季度新闻发布会)’에서 “2018년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평온했고, 안정 속 성장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³⁾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는 한 해 목표치인 1,100만 명의 123.7%를 초과 달성한 1,361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만 명 증가하여 연속 6년 1,300만 명을 초과했다(그림 2 참조).⁴⁾ 또한 도시지역 실업자 재취업자 수는 551만 명, 취업취약계층 중 181만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그림 3 참조).

[그림 2]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



[그림 3] 도시지역 취약계층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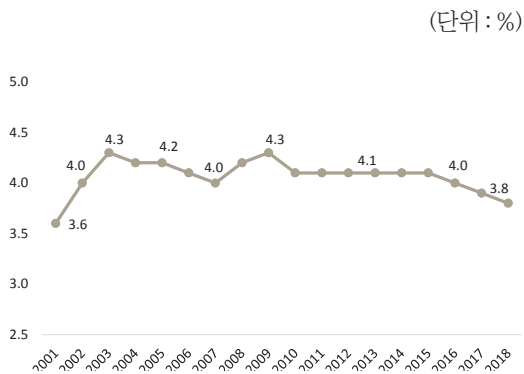
자료 :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http://www.mohrss.gov.cn>).

- 2)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城镇新增就业人数)란, 일자리업무 상황을 반영하고 국가 고용노동정책을 실행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성(省) 위원회, 성(省) 정부 각 시(市)와 주(州) 업무를 고과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 3) 자세한 내용은 人社部2018年第四季度新闻发布会(http://www.china.com.cn/zhibo/content_74402631.htm, 최종검색일 2019년 2월 1일)을 참조.
- 4) 2018년 3월 전국 양회(兩會)에서 통과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는 2018년 한 해 일자리 업무의 핵심 목표로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 1,100만 명 이상,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5.5% 이내, 도시지역登記실업률 4.5% 이내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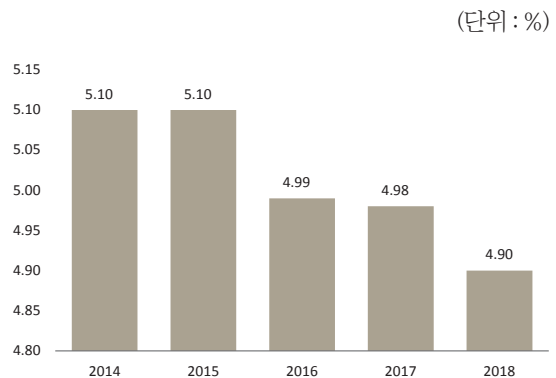
도시지역 등기실업률 3.8%, 2002년 이래 최저치 기록

2018년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당초 우려와 달리 실업률이 치솟거나 대규모 감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2018년 말 현재, 도시지역 등기실업률은 3.8% 수준으로 200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그림 4 참조). 도시지역 등기실업률(城镇登记失业率)이란, 중국 특색의 실업 통계지표로 여기서 실업자는 16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성, 16세 이상 45세 이하의 여성 중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고 동시에 당해지역 취업서비스기구에 구직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실업률은 실업급여 및 최저생계비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된 기초통계이고, 실제 실업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중국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처음으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 예상목표에 포함시켰다. 조사실업률(调查失业率)이란, 제도나 표본분포 등이 모두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조사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진다. 2018년 도시지역 조사실업률은 4.9%로 전년동기대비 0.1%p 감소했고, 월간 중국 도시지역의 조사실업률은 4.8%에서 5.1% 사이를 유지했다. 특히 25~29세 청년층 조사실업률은 4.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그림 5 참조).⁵⁾

[그림 4] 연도별 중국 도시지역 등기실업률



[그림 5] 연도별 중국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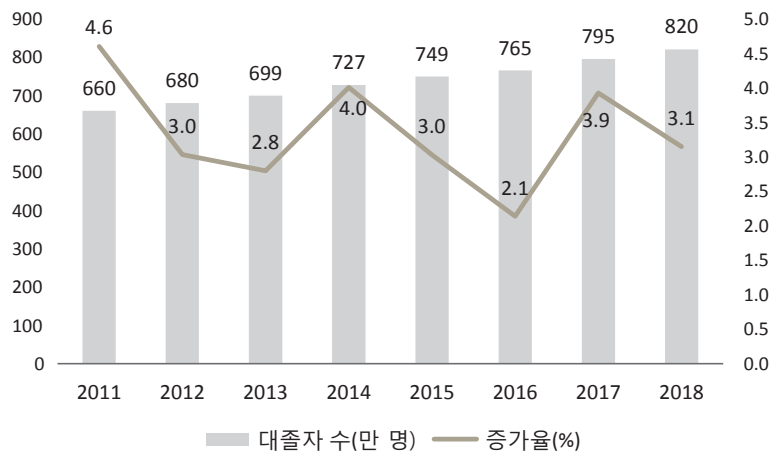
5) 李希如: 就业形势总体稳定 服务业就业进一步扩大(http://www.stats.gov.cn/tjsj/sjjd/201901/t20190122_1646255.html).

대학생, 농민공 등 핵심계층 고용안정 유지

2018년 당해연도 대졸자 수(전문대 포함)는 처음으로 800만 명으로 넘어선 820만 명에 이르렀다(그림 6 참조). 사상 최대인 대졸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취업현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고, 취업률도 소폭 개선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졸자 졸업 시점인 7월에 청년실업률이 다소 증가했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낮아졌고 9월 말 현재 20세 이상 24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청년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한편 2017년 당해 연도 대졸자의 졸업 후 반년 후 취업률은 91.9%로 2016년, 2015년의 91.6%, 91.7%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현재, 농민공 수는 2억 8,836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4만 명(0.6% 증가)이 증가했다(그림 7 참조). 이 중 '당해 지역 농민공(本地农民工)' 수는 1억 1,570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했고, 고향을 떠나 도시지역 비농업 부문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는 농민공을 의미하는 '외출 농민공(外出农民工)' 수는 1억 4,266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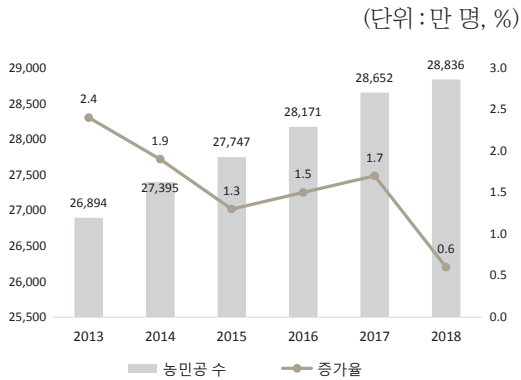
[그림 6] 연도별 중국 대졸자 수 현황



자료 :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http://www.mohrss.gov.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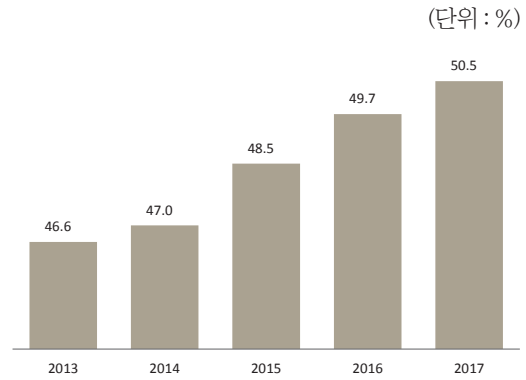
6) 자세한 내용은 李希如: 就业形势总体稳定 服务业就业进一步扩大(http://www.stats.gov.cn/tjsj/sjjd/201901/t20190122_1646255.html, 최종검색일: 2019년 2월 1일) 참조.

[그림 7] 중국 농민공 수 및 증가율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

[그림 8] 연도별 신세대 농민공 비중



으로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농민공 수는 1억 5,808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5만 명 감소했고, 중서부 지역 농민공 수는 1억 2,044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78만 명(3.2%)이 증가하여 중국 전체 증가율보다 2.6%p 높았다.⁸⁾ 농민공의 월평균소득은 3,721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했다.⁹⁾

한편 ‘2017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2017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에 의하면, 농민공 중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신세대 농민공(新生代农民工)이 전체 농민공의 50.5%로 전체 농민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노동수요 증가, 노동공급 감소, 구인배율 증가세

‘중국 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 센터(中国人力资源市场信息监测中心)’의 ‘2018년 4/4분

7) 자세한 내용은 2018年经济运行保持在合理区间 发展的主要预期目标较好完成(http://www.stats.gov.cn/tjsj/zxfb/201901/t20190121_1645752.html, 최종검색일: 2019년 2월 1일) 참조.

8) 자세한 내용은 李希如:就业形势总体稳定 服务业就业进一步扩大(http://www.stats.gov.cn/tjsj/sjjd/201901/t20190122_1646255.html, 최종검색일: 2019년 2월 1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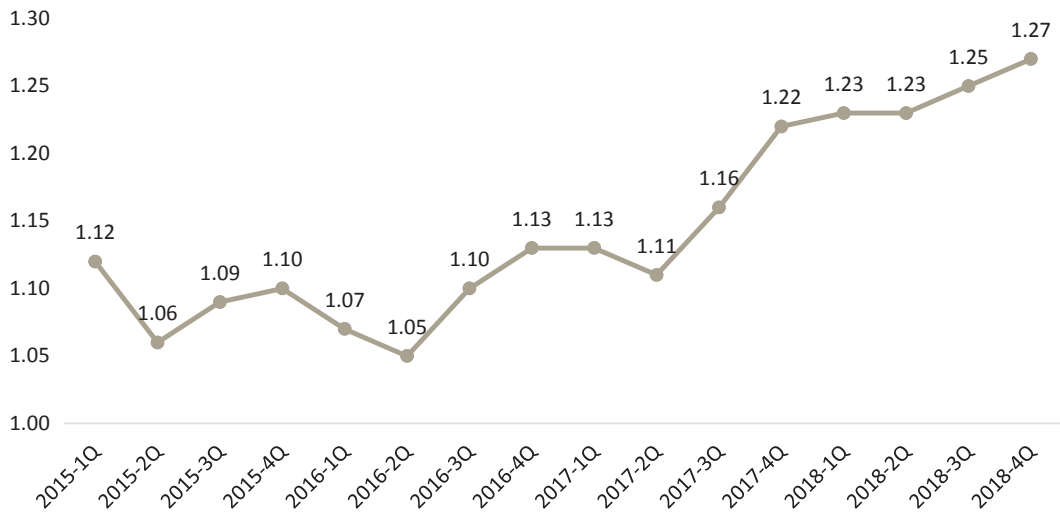
9) 자세한 내용은 2018年经济运行保持在合理区间 发展的主要预期目标较好完成(http://www.stats.gov.cn/tjsj/zxfb/201901/t20190121_1645752.html, 최종검색일: 2019년 2월 1일) 참조.

기 중국 89개 도시 공공취업 서비스기구 시장수급 현황 분석'에 의하면,¹⁰⁾ 2018년 이래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율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4분기 현재 도시지역 기업체가 공공취업서비스기구를 통해 모집한 인원은 약 438만 명이고, 노동력시장에 진입한 구직자 수는 약 343만 7천 명으로 구인배율은 1.27로 전년동기대비 0.05, 전월분기대비 0.02 증가했다.

구인배율 변화추세를 보면, 2015년 이래 상승추세를 보였고, 2016년 3/4분기 이래 구인배율은 1.1 이상이고, 2017년 4/4분기 이래 연속 4분기 1.2 이상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그림 9 참조).

지역별로 보면,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노동수요가 노동공급보다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동북지역과 서부지역 노동수급이 모두 증가했고, 전 분기와 비교하면, 동부, 중부, 서부지역 노동수급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구인

[그림 9] 연도별 구인배율 변화 추이



자료 :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http://www.mohrss.gov.cn>).

10) 자세한 내용은 '2018年第四季度部分城市公共就业服务机构市场供求状况分析(2018년 4/4분기 일부 도시 공공취업 서비스기구 시장수급 상황 분석(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zwgk/szrs/sjfx/201902/t20190201_310090.html, 최종검색일: 2019년 2월 1일)' 참조.

배율은 각각 1.27, 1.22, 1.39로 전년동기대비 동부지역의 노동수요와 구직자 수는 각각 0.9만 명(0.4%), 5.6만 명(2.9%) 감소했고, 중부지역의 노동수요는 3.5만 명(3.2%) 증가한 반면 구직자 수는 3.1만 명(3.4%) 감소했으며, 서부지역 노동수요와 구직자 수는 각각 7.4만 명(10.1%), 1.8만 명(3.3%)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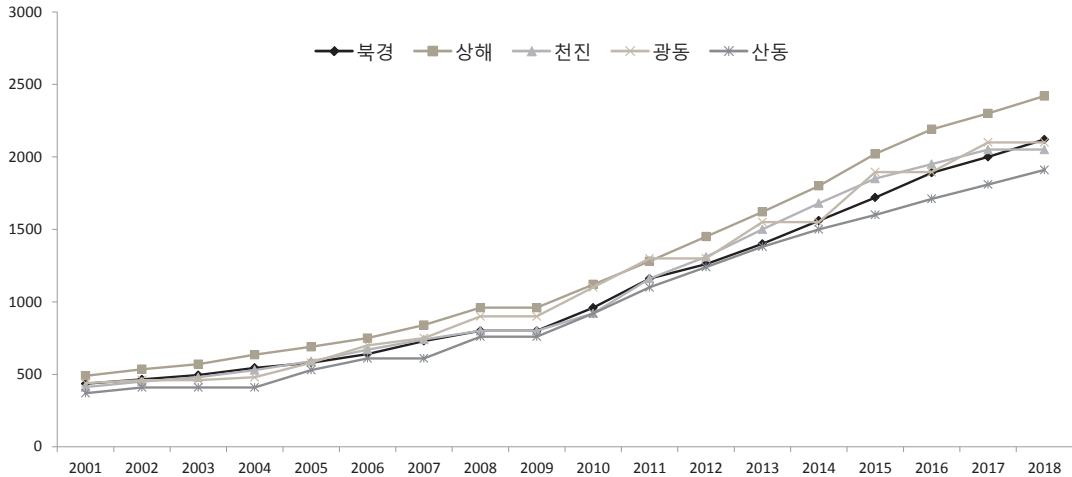
업종별로 보면, 86.6%의 노동수요는 제조업(33.3%), 도소매업(12.8%), 숙박요식업(10.0%), 주민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업(9.4%),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8.9%), 정보전송컴퓨터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5.0%), 부동산업(3.8%), 건축업(3.5%)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차 산업의 노동수요는 0.1%p 감소했다. 이 중 제조업(2%p) 이외에 광업(-15.8%p), 전력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14.5%p), 건축업(-7.8%p) 등 노동수요가 다소 감소했다. 반면 3차 산업의 노동수요는 4.8% 증가했다. 이 중 과학연구기술서비스와 지질탐사업(37.7%), 공공관리와 사회조직(37%), 부동산업(22.9%), 임대와 비즈니스서비스업(15.2%), 수리환경과 공공설비관리업(13.8%), 교육업(7.3%), 도소매업(7.1%) 등 노동수요가 다소 증가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면, 52.7%(전년동기대비 0.7%p 감소)의 노동수요는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등급(33.9%) 혹은 전문기술직함(18.8%)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있었고,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면, 52.5%(전년동기대비 2.6%p 감소)의 구직자는 일정한 기술등급(34.1%) 혹은 전문기술직함(18.4%)을 가지고 있었다. 수급 대비에서 보면, 각 기술등급 혹은 전문기술직함의 구인배율은 1.7보다 컸고, 이 중 고급기능, 고급공정사, 고급기사 구인배율은 각각 2.39, 2.01, 2.01로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증가, 15개 성급행정단위 최저임금 기준 인상

2018년 중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8,228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8.7%(명목) 증가했고, 물가상승 효과를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6.5%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 측면에서 보면, 2018년 12월 말 현재, 중국 31개 성급행정단위(省级行政单位, 성, 자치구, 특별시) 중 북경시(北京市), 요녕성(辽宁省), 상해시(上海市), 강소성(江苏省), 안휘성(安徽省), 강서성(江西省), 산둥성(山东省), 하남성(河南省), 광둥성(广东省), 광서장족자치구(广西壮

[그림 10] 중국 주요 도시 최저임금 기준(2001~2018)



자료 :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http://www.mohrss.gov.cn>).

族自治区), 해남성(海南省), 사천성(四川省), 운남성(云南省), 티벳(西藏),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등 15개 지역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했다. 이 가운데 상해시의 월 최저임금 기준이 2,420위안(한화 약 40만 1,500원)으로 중국 성급행정단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상해시를 포함한 광둥성, 북경시, 천진시, 강소성, 절강성 등 성급행정단위의 월 최저임금 기준은 모두 2,000위안(한화 약 33만 1,800원)을 넘어섰다. 비전일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북경시가 24위안(약 4천 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8년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한 지역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고, 평균 인상률도 지난해 11%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가 현재 중국경제의 둔화와 침체 압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2018년 12월 말 현재 31개 성급행정단위 중 22개에서 기업 임금가이드라인¹¹⁾을 발표했는데, 평균 7%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가이드라인의 기준선과 상한선이 다소 축소되었다.

11) 기업 임금가이드라인(企业工资指导线)이란, 정부가 당해 연도 경제발전 통제목표를 근거로 기업에 발표하는 연도 임금인상 수준의 근거로 강행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임금단체협상 등 기업 임금인상 수준의 참고 근거가 된다.

<표 1> 중국 주요 도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현황(2017~2018)

지역	2017			2018		
	기준선	상한선	하한선	기준선	상한선	하한선
하남	7.5	12.0	3.0	12.0	16.0	3.0
산서	8.0	12.0	4.0	8.5	12.5	4.0
북경	8.5	14.0	4.0	8.5	13.0	4.0
강서	8.0	-	3.0	8.0	-	3.0
복건	8.0	12.0	3.0	8.0	12.0	3.0
상해	-	-	-	8.0	-	3.0
감숙	7.0	13.0	3.0	8.0	14.0	4.0
천진	9.0	14.0	3.0	7.5	12.0	3.0
섬서	7.0	12.0	3.0	7.5	12.0	3.0
안휘	7.0	11.0	3.0	7.5	12.0	4.0
호북	8.0	10.0	3.5	7.5	10.0	3.5
해남	9.3	10.2	3.0	7.1	8.9	3.4
내몽고	8.0	12.0	2.0	7.0	10.0	1.5
산둥	7.5	12.0	3.0	7.0	11.0	3.0
사천	7.5	12.0	3.0	7.0	11.0	3.0
운남	7.0	13.0	3.0	7.0	11.0	2.0
광서	8.0	12.0	2.0	7.0	11.0	2.0
녕하	7.5	13.0	2.0	7.0	13.0	2.5
신장	8.0	10.5	3.0	7.0	10.0	3.0
요녕	-	-	-	7.0	10.0	4.0
길림	7.0	12.0	3.0	6.0	10.0	3.0
청해	7.0	13.0	3.0	6.0	12.0	3.0

자료 : http://finance.ifeng.com/a/20181208/16610388_0.shtml

노동분쟁¹²⁾ 발생건수 증가

2018년 3/4분기 현재 중국 노동분쟁조정중재기구가 처리한 노동인사분쟁¹³⁾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한 129만 7천 건, 노동분쟁 관련 노동자 수는 150만 명으로 나타났다. 처리 결과로 보면, 종결된 안건 수는 117만 건이고, 조정성공률은 67.7%, 중재재결률은 88.9%로 나타났다.¹⁴⁾ 그리고 2018년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통계속보(2018年人力资源和社会保障统计快报数据)¹⁵⁾에 의하면, 2018년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수리된 노동분쟁 안건 수는 89만 4천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했고, 노동분쟁 관련 노동자 수는 111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2018년 개별적 노동분쟁 안건 수가 증가했고, 노동분쟁 관련 노동자 수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북경시를 예로 들면, 노동분쟁 안건 수는 대폭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 북경시 중재기구가 수리한 노동인사분쟁 안건 수는 4만 5천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1% 증가했다. 북경시 노동분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분쟁 수가 역사상 가장 많았다. 2018년은 2017년 같은 기간에 수리된 안건 수를 초과했다. 둘째, 전체 노동분쟁의 95%가 민영기업에서 발생했다. 이 중 주식제연합경영기업이 30% 이상을 차지했고, 자영업 및 사영기업은 50% 이상을 차지했다. 셋째, 노사 갈등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노동분쟁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분 승소한 안건 수가 전년동기대비 3%p 증가해 75% 이상을 차지했다. 넷째, 분쟁원인이나 요구내용에서 보면, 대부분 분쟁의 요구유형이 대체로 유사했고, 여러 가지 요구가 상호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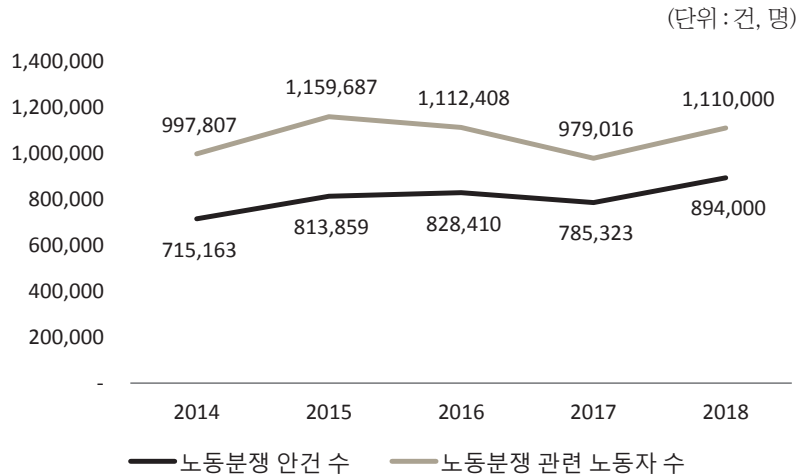
12) 중국에서는 노동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노동쟁의(劳动争议)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서 노동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법률, 법규의 집행과 노동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즉 노동자와 기업 간 노동관계 중의 권리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개별적 노동분쟁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법상 노동조합과 사용자 관계에 있어 근로조건에 관한 의결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집단적 노동분쟁)을 의미하는 노동쟁의와 다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노동쟁의 대신 노동분쟁으로 고쳐 쓴다.

13) 노동인사분쟁은 노동분쟁과 인사분쟁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이다. 인사분쟁은 국가기관, 사업단위(비영리기관) 업무인원 등과 그 기관이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 도급 등 다른 법률관계를 기초로 체결한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14) 乔健·张原(2018), 「2018:中美经贸摩擦背景下的中国职工状况」, 『2019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15) 2018年人力资源和社会保障统计快报数据(<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zwgk/szrs/dtyjsu/>, 최종검색일: 2019년 2월 1일).

[그림 11] 노동분쟁 안건 수 및 관련 노동자 수



자료 : 2014~2017 자료는 국가통계국; 2018년 자료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하는 상황이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계약, 사회보험 및 복리처우와 관련된 분쟁 안건이 대부분이고, 요구내용은 주로 노동관계의 확인, 경제보상금 지급, 사회보험료 지급, 임금차액, 연장수당 지급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분쟁이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내용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형 안건이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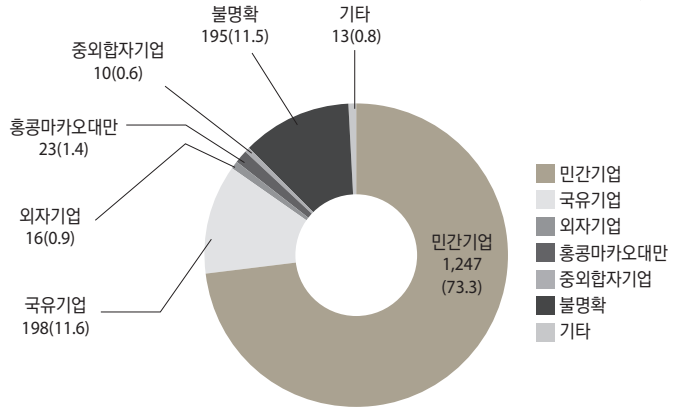
파업 등 단체행동 민영기업 증가, 제조업 감소, 소규모 추세¹⁷⁾

홍콩의 노동NGO인 중국노공통신(中国劳工通讯)은 언론이나 SNS 등을 활용하여 중국 각 지역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수집하여 파업지도(Strike Map)를 만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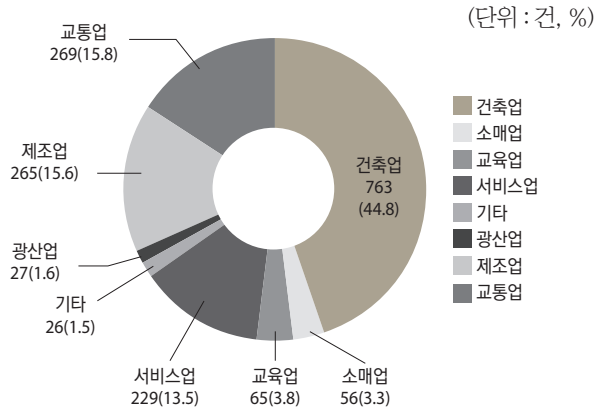
16) 乔健·张原(2018), 「2018:中美经贸摩擦背景下的中国职工状况」, 『2019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17) 이하, 대부분의 내용은 중국노공통신(China Labour Bulletin)의 '2018 중국 노동관계 개황 회고 (2018中国劳动关系概况回顾)'의 글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https://clb.org.hk/content/2018%E4%B8%AD%E5%9B%BD%E5%8A%B3%E5%8A%A8%E5%85%B3%E7%B3%BB%E6%A6%82%E5%86%B5%E5%9B%9E%E9%A1%BE>).

[그림 12] 기업소유제별 단체행동 발생 현황



[그림 13] 업종별 단체행동 발생 현황



자료 : 2014~2017 자료는 국가통계국; 2018년 자료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있다.¹⁸⁾ 파업지도를 살펴보면(2019년 2월 1일 기준),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파업 등 단체행동은 1,702건이었다. 이 중 73.3%에 해당하는 1,247건이 민영기업에서 발생했고, 국유기업은 198건(11.6%), 외자기업 16건(0.9%), 홍콩·마카오·대만기업이 23건(1.4%), 중외합자기업이 10건(0.6%) 등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한국기업과 관련된 단체행동은 3건에 불과

18) 자세한 내용은 <https://maps.clb.org.hk/strikes/en> 참조.

했다.¹⁹⁾

지난해 발생한 대부분의 파업 등 단체행동은 참가자 10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되었고,²⁰⁾ 지속 시간도 그다지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과거와 같이 경제가 발달되어 있는 광둥성(广东省), 강소성(江苏省), 절강성(浙江省) 등 동남부 연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²¹⁾

업종별로 보면, 건축업이 763건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고, 교통업 269건(15.8%), 제조업 265건(15.6%), 서비스업(13.5%)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특징을 보면, 첫째, 최근 들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파업 등 단체행동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파업 등 단체행동은 2014년 41%에서 2018년 15.6%로 감소했다. 그리고 2018년 제조업에서 발생한 파업 등 단체행동 중 19%는 공장이전 혹은 조업중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중국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향후 이 비중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건축업에서 발생한 단체행동이 전체의 44.9%로 가장 많았고, 이 중 98%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이었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현금흐름이 나빠져서 건축업의 임금체불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난해 운수업에서 발생한 파업 등 단체행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운수업체 간의 악성경쟁, 일방적인 운임인하, 근로조건 악화 등으로 장거리 트럭기사, 화물차 기사들과 디디추싱(滴滴出行)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예약 차량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은 택시기사들이 잇달아 운행거부 등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섰다.

19) 한국과 관련된 3건의 사건 중, 2건은 북경시, 강소성의 롯데마트 폐업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1건은 한운시스템(옛 한라공조)이 자동차 부품업체 캐나다 마그나(MAGNA)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단체행동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한국 기업에서 발생한 단체행동은 2건에 불과했다.

20) 파업 지도의 의미에서 말하면, 전체 단체행동 등 파업의 89.5%가 참가자 100명 이하의 소규모 단체행동 등 파업이었다.

21) 지역별로 보면, 광둥성이 167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서부 내륙지역의 하남성이 142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섬서성(102건)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평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경제에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의 우려와 달리 중국의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 실업률, 구인배율 등 각종 고용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원인이 상호작용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에 따른 결과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잠정 집계한 2018년 GDP는 90조 309억 위안으로 사상 처음으로 90조 위안을 돌파해 중국 경제규모가 한층 더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일자리도 함께 늘어났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루아이홍 대변인은 언론브리핑에서 13·5 발전계획(2016~2020) 이래 GDP가 1%p 증가할 때마다 창출되는 도시지역 신규증가 일자리는 190만 개 안팎으로 12·5 발전계획(2011~2015) 시기보다 30만 개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²²⁾

다음으로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들 수 있다. 3차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다른 산업보다 크다. 2018년 3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46조 9,600억 위안(한화 약 7,792조 72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p 늘어나 GDP의 52.2%를 차지했다. 한편 GDP 중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2%, 40.6%, 52.2%로 전년동기대비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p 증가했고, 3차 산업의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59.7%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신산업, 신업종, 신비즈니스모델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부가가치가 큰 쪽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전송·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교통운수·창고와 우정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0.7%, 8.9%, 8.1% 증가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서비스업의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작용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9월 말 현재, 산업별 취업비중은 1차(27.4%), 2차(28.0%), 3차(44.6%)로 나타났고, 이 중 1차, 2차 산업의 비중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7%p, 0.1%p 감소한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0.8%p

22) 자세한 내용은 人社部2018年第四季度新闻发布会(http://www.china.com.cn/zhibo/content_74402631.htm, 최종검색일: 2019년 2월 1일) 참조.

<표 2> 2018년 국내총생산액 현황

지역	GDP(억 위안)	비중(%)	증가율(%)
GDP	900,309	100.0	6.6
1차산업	64,734	7.2	3.5
2차산업	366,001	40.7	5.8
3차산업	469,757	52.2	7.6
농림목어업	67,538	7.5	3.6
공업	305,160	33.9	6.1
#제조업	264,820	29.4	6.2
건축업	61,808	6.9	4.5
도소매업	84,201	9.4	6.2
교통운수, 창고와 우정업	40,550	4.5	8.1
숙박 및 요식업	16,023	1.8	6.5
금융업	69,100	7.7	4.4
부동산업	59,846	6.6	3.8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기술서비스업	32,431	3.6	30.7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24,427	2.7	8.9
기타서비스업	139,224	15.5	6.3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서비스업의 취업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정보전송·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수리·환경과 공공시설관리업, 교육, 위생과 사회 업무, 문화·체육과 레저업 등 신흥서비스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마지막으로 규제개혁(放管服)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정부는 ‘대중창업, 만중창신(大众创业、万众创新)²³⁾’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규제개혁에 계속해서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면서 창업이 증가하고 새

23) 대중창업, 만중창신(大众创业、万众创新)이란,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혁신을 한다는 의미로 창업과 혁신을 강조한다는 의미로 쌍창(双创)이라고도 한다.

로운 고용형태가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설기업에서 대규모로 일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도시지역 사영기업, 자영업자가 흡수한 도시지역 취업자 수가 이미 전체 취업자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창업기업 1개사당 종사자 수는 8.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⁴⁾ 2018년 신설기업 수는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해 하루 평균 1.84만 개 기업이 새로 생겼다.²⁵⁾ 이와 같이 창업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끊임없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오픈 마켓, 공유경제 플랫폼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고용형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시켰다. 유연성과 공평성을 특징으로 갖는 신경제, 신업태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문턱이 높았던 고용분야에서 창업이나 취업을 가능케 했다. 예를 들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중 하나인 타오바오(淘宝), 징동상점(京东商城)은 장애인에게 CS업무, 온라인 판매점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우버(中国优步), 디디추싱(滴滴出行) 등 온라인 차량예약 플랫폼에 따르면, 전체 등록기사 중 55%가 다른 일자리에서 저학력, 고령, 호구 등 문제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이와 같이 신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전통적인 고용형태를 변화시켰고,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현재, 중국 신업태의 종사자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공유경제발전보고 2017(中国分享经济发展报告2017)’에 따르면, 2016년 중국에서 공유경제활동 참가자 수는 6억 명으로 2016년에 대비 1억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자 수는 6,000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000만 명 늘어났고 이 중 플랫폼 종업원 수는 약 585만 명으로 2016년 대비 85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杨宜勇·党思琪(2018), 「2018~2019年的就业形势及其对策」, 『2019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5) 자세한 내용은 人社部2018年第四季度新闻发布会(http://www.china.com.cn/zhibo/content_74402631.htm, 최종검색일 2019년 2월 1일) 참조.

26) 杨宜勇·党思琪(2018), 「2018~2019年的就业形势及其对策」, 『2019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맺음말 : 2019년 중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2018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6.6%로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고용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는 고속성장기에 비해 많이 더뎠지만, GDP가 1% 성장할 때마다 과거(2011~2015) 16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면, 현재(2016~2020)는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중국경제의 규모와 질량이 향상되면서 중국 노동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2018년 중국정부가 설정한 일자리 관련 업무 연간 목표치는 조기에 달성되었다. 하지만 2019년 중국 노동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인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심화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미국에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형 산업과 기술집약형 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과거와 같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쳐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노동분쟁이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발생한 선전시 지아쓰 과학기술 주식유한회사(深圳佳士科技股份有限公司)(이하, JASIC이라고 함)의 단체행동은 중국 노사관계의 현 상황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발생 초기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른 단체행동과 별다른 차이점은 없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회(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이 과정에 대학생 및 마오주의 좌파청년단체가 동조하면서 참가노동자와 수십 명의 대학생이 연행되거나 퇴학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대부분의 파업 등 단체행동은 민영기업에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에는 기업공회가 없거나 설립되어 있더라도 사측의 통제를 받고 있어 노동자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대표할 수 없어서 향후 JASIC와 비슷한 사건이 계속 터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정부가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KLI**